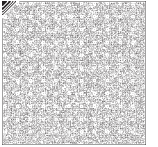




임주빈 모니카 | KBS 심의위원



| ‘요나서’로 연극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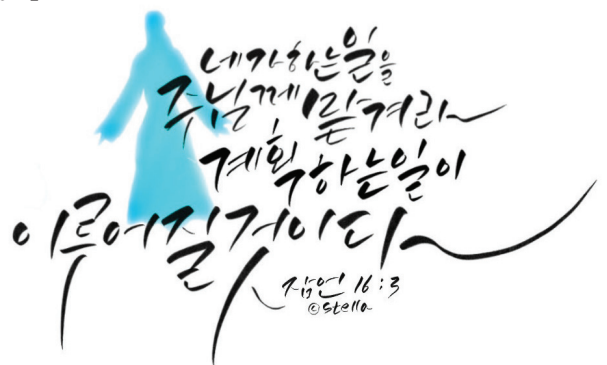
지난해 가을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.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 서울대교구 문화학교에서 <‘요나서’로 연극하기>라는 강좌를 들은 것입니다. 요나 이야기는 신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아는 내용입니다.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연극이나 구연동화로 한 번쯤은 접해 봤다는 분이 많습니다. 이 강좌에서는 1주일에 두세 번 ‘요나서’를 읽는 것이 기본 과제입니다. 그리고 요나서에 대한 신부님의 해설 시간이 있고, 요나서를 읽고 각자 느낀 점을 에세이나 연극 대본으로 써서 발표합니다. 최종적으로 수강생들이 함께 짝막한 낭독극이나 연극을 만들어 종강 미사에서 발표합니다.

저는 이 수업을 통해 그동안 이야기 중심으로 피상적으로만 알던 ‘요나서’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.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히브리의 예언자 요나가 왜 하느님 말씀을 피해서 달아났다가 물고기 배 속에 갇히고 말았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됐고, 그런 요나의 심정에 깊이 공감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. 요나가 반발했던 바로 그 하느님의 사랑, 이민족에게까지 차별 없이 베푸시려는 하느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나는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... 또, 내가 생각하는 공평함과 하느님이 행하시는 공평함의 간극은 왜 이렇게 큰 것인지...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.

저는 믿음을 멀리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며, 악한 이를 무조건 용서하는 것 또한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왔습니다. 그 래야 정의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고 사회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이번 <‘요나서’로 연극하기> 수업은 하느님의 정의는 제가 생각하는 정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. 주님께겐 모든 피

조물이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기에,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처벌보다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. 그 과정에서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끊임없이 주십니다. 저는 하느님께서 무엇 때문에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수없이 주시는지 못마땅했습니다.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교인들만 잘 챙겨주시면 될 것을, 못되고 얄미운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계속 관심을 기울이시고 주님 안으로 이끄시려는 것이 불만이었던 거죠. 하느님의 사랑을 이해하기엔 제가 너무나 속 좁고 편협했습니다. 우리 편, 네 편 갈라서 우리 편만 사랑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. 하지만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. 편견의 눈을 거두고, 편 가르기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해봅니다. 이것만으로도 제가 <‘요나서’로 연극하기> 수업을 받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주님께 다가가는 방법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음을 느끼게 해준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. 다음 학기 문화학교에는 또 어떤 강좌들이 있을지 찬찬히 살펴봐야겠습니다.

나를 이끄는
성경구절



이영주 스텔라 | 수서동성당